우암학원 창학 75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SINCE 1952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본점·여신사업부·문흥지점·양산지점·운암지점·매곡지점·첨단지점·동림지점·등광주지점·각화지점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553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6월 14일 2025년 8월 7일 목요일

“여수광양항,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키우자”

태평양~베링해~북극해~네덜란드 로테르담 항만 노선
전남도, 국정과제 ‘북극항로 개척’ 맞춰 거점화에 총력
여수광양항 비컨테이너선 최고 수준…부산항보다 적합

전남도가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개척’에 맞춰 여수광양항을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려고 총력을 쏟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전남 대표 항구인 여수광양항은 수·출입 물량인 원유, 철강 등이 관련 산업 침체로 격감하면서 도약의 전기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물동량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트리거룰’에 따라 정부 지원마저 부산항과 인천항, 울산항 등 타 항만에 비해 열세에 놓여 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여수광양항 북극항로 거점화를 위한 대응 방안 전남도 정책 세미나’를 진행한 데 이어 같은 달 31일 국회에서 ‘여수광양항 북극항로 거점항만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총력을 쏟고 있다.

북극항로는 태평양을 지나 러시아 동쪽 영토와 알래스카 사이 베링해를 통과한 뒤 북극해를 거쳐 국제 허브항만인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만까지 닿는 노선이다.

북극항로는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현재 연중 6개월만 이용가능한 항로가 2030년이면 연중 항로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북극항로는 운항거리와 운항일수를 크게 줄일 수 있어 경제성이 탁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남태평양을 거쳐 수에즈 운하를 지나는 항로는 부산항 출발을 가정해 운항거리가 2만2000㎞인데 반해 북극항로는 이보다 32% 적은 1만5000㎞에 불과하다.

운항일수 역시 현재 항로는 40일이지만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30일로 줄게된다.

북극항로는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 해운통로의 다변화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새 정부가 북극항로 개척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이유이다.

북극항로가 지방의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함에 따라 지자체 간 물밑경쟁도 심화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이전이 확정된 부산의 경우 가장 먼저 경쟁에 뛰어들었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북극항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최근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타 지자체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은 영일만항 확장을 결정했고 울산은 울산항에 추진 중인 항만기반시설이 조기 준공에 매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여수광양항이 북극항로 관문항의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당장 북극항로는 부산항이 특화된, 운송 도중 컨테이너를 옮겨 싣는 환적이 불필요한 항로다. 원유, 벌크 등 비컨테이너선은 환적 없이 목적지로 직항하는데, 당장 지난 2023년 북극항로를 운항한 선적의 99%는 원유, 벌크화물(광물, 석탄 등 포장하지 않은 물류) 등 비컨테이너선이었다.

여수광양항은 비컨테이너선 물량이 국내 항만 중 최고 수준이다. 국내 최대 항만인 부산항의 경우 지난해 비컨테이너 물량이 2200만t이었던데 반해 여수광양항은 이보다 12배 가량 많은 2억4500만t을 기록했다. 북극해에 매립된 석유와 천연가스를 운송하기 위해서도 여수광양만이 관문항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전남도는 호남 발전을 천명한 새정부가 여수·광양항을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지정하면 산업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획기적인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여수광양항은 북극항로 거점항만에 가장 적합한 항구”라며 “부산을 컨테이너 중심, 여수광양항을 비컨테이너 중심 항만으로 지정,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경쟁력이 줄어들고 있는 여수광양항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폭우 피해’ 광주 북구·나주·함평 등 특별재난구역 선포

지자체 복구비 부담 줄어

‘괴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광주시 북구, 광산구 어룡동·삼도동, 나주, 함평 등 전국 36곳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6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6~2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국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등 36곳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 중 광주·전남에서는 광주 북구, 나주·함평, 광양 다압면, 구례 간전면·토지면, 화순 이서면, 영광 군남면·염산면, 신안 지도읍·임자면·자은면·흑산면 등이 포함됐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집중호우로 주택·상가·농경지 침수와 도로·제방 유실 등 광범위한 재산 피해가 발생한 데 따라 중앙합동조사단의 피해 현장 확인과 피해액 산정,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난지원금·시설복구비 등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피해 주민들은 국세·지방세 감면 및 납부 유예,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 등 방안 찾으라”

이재명 대통령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포스코이앤씨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관련기사 6면〉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이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다.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4건, 광양제철소 1건 등 지난달까지 포스코그룹 산하 작업장에서는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포스코이앤씨의 회사명을 거론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하고 있다. 전·현직 대통령 부인이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공개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 출석

주가조작·명품수수 의혹 등 조사
혐의 부인에 구속영장 청구 ‘주목’

김건희 여사가 특검 조사를 위해 6일 출석했다.

〈관련기사 2면〉

전직 영부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공개 출석하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여사는 이날 검은색 정장차림으로 출석했다.

포토라인에 선 김 여사는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국민에게 할 말씀 있습니까’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는 답변만 한채 조사실로 이동했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 개입 의혹, ‘건진 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통일교의 청탁용 고가 명품 수수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 여사는 앞서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김 여사 조사에 입회했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한 호칭을 ‘피의자’로 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별도의 티타임 없이 오전 10시 23분께 조사를 시작했다. 중간에 10분 정도 휴식한 뒤 오전 11시 59분까지 조사를 이어갔다.

1시간 가량 점심 식사를 한 뒤, 오후 1시부터 조사를 재개한 특검은 오후 2시 10분께 10분간 휴식을 가졌고, 2시 분께 조사를 잠시 멈춘 뒤 30분 가량 휴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오후 3시 10분부터 조사를 다시 시작한 특검은 오후 5시 46분께 종료했다. 7시간 20여분간 조사가 진행된 것이다. 김 여사가 혐의 일체를 부인하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효천지구 주민 “SRF 악취 때문에 못살겠다” ▶6면
KIA의 복덩이 한재승 이적 후 맹활약 ▶18면
팔도 핫플 - 아산 신정호공원 ‘8색 힐링’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The new EQE SUV
누구도 예상못한 아우라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 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센터 사고수리 062)942-7200 / 일반정비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천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QE 350 4M SUV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 4.1(도심: 4.3, 고속도로: 3.9) 1회 충전거리(km) : 445, 공차중량(kg) : 2540, 배터리 용량(kWh) : 90.56
· EQE 500 4M SUV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 4.1(도심: 4.2, 고속도로: 3.9) 1회 충전거리(km) : 449, 공차중량(kg) : 2590, 배터리 용량(kWh) : 96.5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